

울산힌돌교회 셀모임 나눔지

2025년 5월 25일 주간

셀 모임은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주일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시간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하나 됨이 있는 시간, 위로와 공감에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됩시다!

인사 :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ICE BREAK! 지금까지 들었던 말중에 가장 나를 행복하게 했던 말은? 언제? 누구에게?

1. 본문 말씀 : 사사기 11:29-36

2. 설교 제목 : **입다를 통해 배우는 가정의 언어**

언어는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 오가면 그 집은 포근한 쉼터가 되지만 차가운 말이 오가면 그 집은 불안한 전쟁터로 바뀝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 뱉는 말 한마디는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지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어릴적 성장 배경이 평탄하지 않았음에도 그가 믿음의 언어와 잘 정돈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입다를 통해 우리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상처의 언어는 끊어내고 회복의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깡패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통 언어가 거칠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상처에 근거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상처가 만들어 낸 언어가 아니라 회복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용하려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단호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처에 매인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 탓을 많이 합니다. 늘 독한 말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회복의 언어는 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감싸 줍니다.

나눔 : 내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마음이 아릅니까? 혹시 자주 남탓을 하거나 피해자의식으로 말하지는 않나요?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 보면서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입다는 자신의 민족을 쳐들어온 암몬 사람들에게 지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상황과 환경만 바라 보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말하였습니다. 안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것은 불신앙의 언어입니다. 된다. 가능하다. 해보자. 이것은 신앙의 언어입니다.

나눔 : 우리 가족들이 주로 안된다, 힘들다고 말하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셋째로, 우리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언어를 멈추고 절제된 말을 해야 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입다는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자기를 맞이하는 가장 첫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하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에게 가장 먼저 보인 사람은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빠지면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합니다. 충동적으로 말했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입을 닫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나눔 :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말했다가 매우 힘들었던 경험은 없나요?

3. 다함께 기도 - 기도부장 인도

- 1)우리 흰돌의 모든 가족들이 다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게 하소서.
- 2)원로 목사님 선교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에게 더 큰 영성과 지성과 체력을 주소서.
- 3)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섬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자라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소서.
- 4)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계속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4. 헌금 및 광고(찬양하면서)

5. 주기도문으로 셀 모임을 마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원제: 축복의 통로)

이민섭

당신은-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통로

당신을-통하여-서 열방이- 1. 주께- 돌아오게 되 리
2. 주께- 예배하게 되 리

Copyright (c) 1999 이민섭 . Adm. By YWMA Publishing Kore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사랑의 나눔

Taize

사랑의 나 눔 있 는 곳 에

하나님께 서 계 시 도 - 다

Copyright (C) Taize. International Rights Secured.

(은혜의 나눔. 기쁨의 나눔. 행복의 나눔.)

희망과 행복을 주는 울산흰돌교회